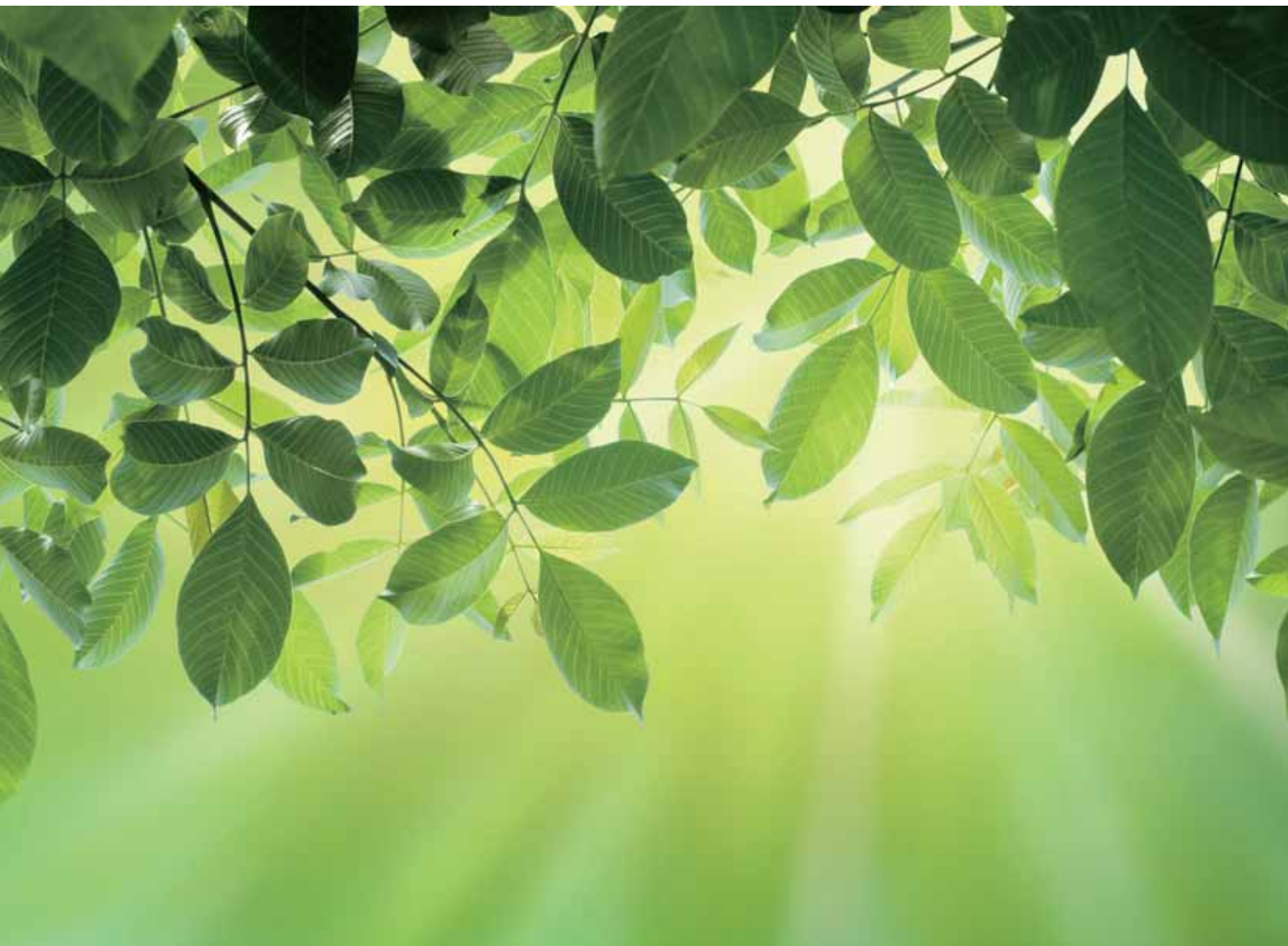


# 언론 사람

# 05

2020  
VOL.239



**04 인터뷰 人+人**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06 Newmedia of the World**  
저작권지침이 가속화할  
언론사 양극화

**08 세상사는 法**  
AI 모더레이터와  
미래 사회의 법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뒤편한 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신문기자'

- 04** 인터뷰 人+人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06** Newmedia of the World  
저작권지침이 가속화할 언론사 양극화
- 08** 세상사는 法  
AI 모더레이터와 미래 사회의 법
- 10** 돋보기  
부조리에 대한 비판

- 12** 이달의 시  
들꽃과 자전거가 동행하는 '야생(野生)'의 길
- 14** 단어의 증력  
쓰다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땃땃한 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신문기자'
- 18**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5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Triff <Greenery>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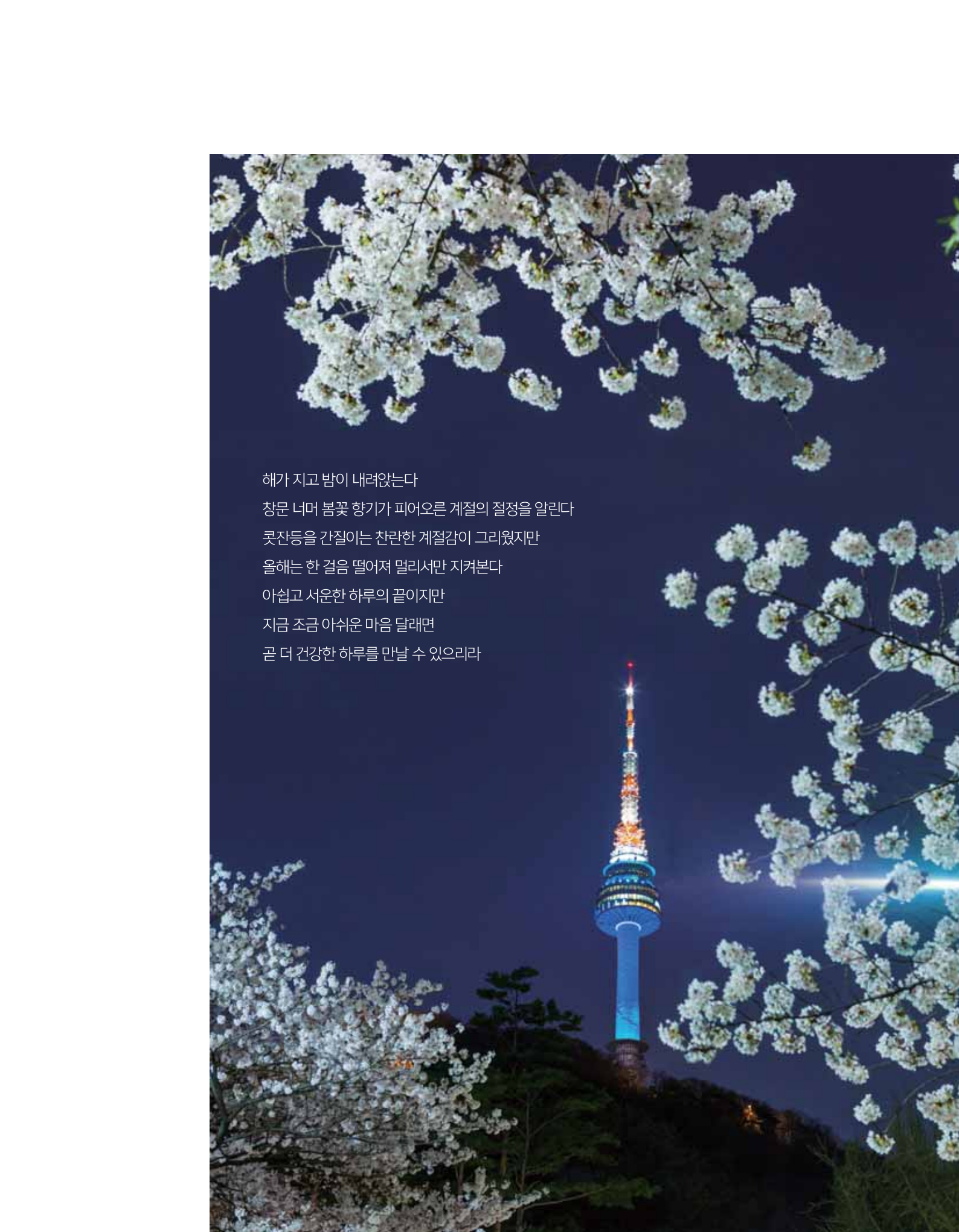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내려앉는다  
창문 너머 봄꽃 향기가 피어오른 계절의 절정을 알린다  
콧잔등을 간질이는 찬란한 계절감이 그리웠지만  
올해는 한 걸음 떨어져 멀리서만 지켜본다  
아쉽고 서운한 하루의 끝이지만  
지금 조금 아쉬운 마음 달래면  
곧 더 건강한 하루를 만날 수 있으리라



## 인터뷰 人+人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사진 및 정리 윤은자(홍보팀 에디터)

# 초연결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Hyper-Connected Society, Quo Vadis?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1989년 인터넷 탄생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초창기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디지털은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초연결(Hyper-Connected) 환경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허위정보의 확산에 대해 인터넷의 아버지 팀 버너스 리(Timothy Berners Lee)조차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의 격랑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에게 그 방향을 물었다.



### Q 범죄심리학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A 범죄심리학은 심리학 분야 중에서 사법제도와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교정·교화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에 필요한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가장 널리 알려진 건 ‘프로파일러(Profiler)’일 텐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뤄졌죠. 실제로도 심리치료나 상담기법을 이용해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Q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A 예전에는 범죄자들이 만나서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오프라인 특성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에서 순식간에 모였다 사라져요. n번방 사건에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행위조차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인스턴트적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해왔지만, 공론화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n번방 재발 방지 청원은 국회에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것을 산업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육성이 필요한 IT 기술로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있었다면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이 마련돼야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함정 수사도 필요합니다. 경찰이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서

버가 해외에 있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렇게라도 수사를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 ㉠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이 사안을 취재한 한겨레 김완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잠입 취재를 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매매나 음란물 사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SBS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보호주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밑거름이 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고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요? 양심적인 기자들은 그 경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일부 언론도 있겠죠. 하지만 언론인이라면 자녀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 ㉡ 언론보도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는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이 나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하지만 사이버상의 범죄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 여성가족부와 함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함정수사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인(LINE)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 착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문제라며 포털에 면죄부를 주었지만, 이제는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된다면 정정이나 반론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용을 삭제하고 포털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죠.

### ㉢ 지난 4월 대법원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예인 시켜준다고 유혹하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 착취를 하는 구조 속에서 제일 취약한 것은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이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 배포만 했다면 현재로서는 신체적으로 성 착취에 가담한 사람보다 형량을 더 높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고민했는데, n번방 가해자들은 직접 만난 적은 없기 때문에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해 몇 십 명을 검거했는데, 경제력 있는 3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약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다 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성 착취를 당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영아 살인 통계를 보면 5년 전에는 연간 6~7건이었는데 2017년, 2018년에는 30건으로 늘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방관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 ㉣ 가정의 달을 맞아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n번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같은 약자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엄벌을 받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를 절망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라도 새로운 인생을 가질 수 있게 해야죠.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대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도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IMF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범죄에 연루되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면 제대로 살기 힘들겠죠. 결국 계속 불법행위에 가담하다 사회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품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안교육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라고 강요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너그러워지도록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지침이 가속화할 언론사 양극화

고품질 저널리즘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취재를 위한 비용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과 직결돼 있다. 플랫폼은 고품질 저널리즘을 간절히 희망한다. 전 세계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해 큐레이팅한다지만 그들의 상품성을 빛나게 하는 콘텐츠는 솔직히 많지 않다. 트래픽만을 쫓으며 10분 안에 생산될 수 있는 뉴스와 수 명의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수개월의 공을 들여 제작한 콘텐츠가 검색 알고리즘 안에서 동급으로 취급되진 않는다. 지난 4월 초 발표된 프랑스 공정위(L'Autorité de la concurrence)의 '저작인접권 라이선스로 지급 명령'<sup>1)</sup>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수년간 이어진 이 지난한 싸움의 결론은 뉴스 발체문, 섬네일 등에도 돈을 내라는 것이다. 구글세, 링크세 등으로 불리며 2010년대 초부터



이어진 법적, 정치적 다툼은 이날 프랑스 공정위의 명령으로 보상의 첫 물꼬가 터졌다. 2014년 전후 유럽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붙은 라이선스로 지불 논쟁은 당시만 하더라도 구글의 승리로 귀결되는 듯했다. 스페인이 강력한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구글에 저작권료 부과를 명령했지만, 구글이 이내 뉴스 서비스를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2012년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돼 압박이 강화됐지만, 구글은 이듬해 디지털 출판혁신 펀드를 출범시킴으로써 부드러운 화해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반전의 계기는 2019년 10월 24일 EU 저작권 지침의 프랑스 내 시행이었다.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으로는 녹록지 않자 유럽연합은 EU 저작권 지침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프랑스는 첫 번째 테스트베드였다. 구글은 반발하며,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구글 뉴스에서 발췌문을 제외하는 강수를 뒀다. 뉴스에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트리진 않겠다는 포석이었다. 제2의 스페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공정위는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없으며, 직접 지불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3개월 안에 마련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AFP를 위시한 프랑스 언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와중에 구글은 프랑스 내 대형 언론사인 르몽드, 르피가로와 별도 협상을 개시했다. '직접 지불 모델'을 향한 별도의 뉴스 제품 개발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고품질 저널리즘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프랑스 언론사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묘책을 떠올린 것이다. 다만 모든 언론사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지는 않았다. 일부 유력 언론사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제 다수 언론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처지다. 프랑스 공정위에 경과도 보고해야 한다. 스페인의 실패를 더듬으며 치밀한 전략을 완성한 프랑스 언론사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셈이다. 남은 쟁점은 보상액의 크기다.

프랑스 공정위의 명령은 유럽을 넘어 영미, 심지어 아시아에까지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뉴스 발췌문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이 최종 확정된다면, 구글 뉴스에 의존해온 많은 수의 언론사들이 너도나도 직접 지불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모든 언론사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페이

○  
|  
플랫폼은 고품질 저널리즘을 간절히 희망한다. 전 세계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해 큐레이팅한다지만 그들의 상품성을 빛나게 하는 콘텐츠는 솔직히 많지 않다.

○  
스북의 뉴스탭 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플랫폼 기업들은 저작권료 지급 대상을 일부 대형 언론 위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것도 플랫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에서 직접 지불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추론해 보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규모 언론사는 플랫폼의 직접 지불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형 언론사들은 플랫폼에 우호적인 검색 노출 요건을 수락하면서 반대급부로 저작권료를 얻어내는 이익을 누리게 될 듯하다. 핵심은 이것이 뉴스 생태계와 저널리즘 품질에 미칠 영향이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의 에밀리 벨은 코로나19가 뉴스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플랫폼은 이미 뉴스를 훨씬 더 엄격하게 편집 및 큐레이팅하고 있다. 프로모션할 수 있는 언론사의 수는 앞으로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커지겠지만 그 수는 점차 희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엔 이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신뢰와 위기관리를 위해서다.

프랑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언론사 양극화의 또 다른 신호탄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제공하는 한정된 자원의 파이를, 전 세계 모든 언론사가 균등 배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신뢰 자본이 쌓인 대형 언론사들은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다. 반면 중소 규모 지역 언론사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버거운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프랑스 공정위의 명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스 산업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위기 국면'의 전초전이 될지도 모른다.

1) <https://www.autoritedelaconurrence.fr/fr/communiqués-de-presse/droits-voisins-lautorite-fait-droit-aux-demandes-de-mesures-conservatoires>



## AI 모더레이터와 미래 사회의 법

코로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다수의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경험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것들인데, 얼마 전에는 코로나 비상 상황이 AI 모더레이터가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모더레이터(Moderator)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 포르노, 테러 위험 게시물 등을 골라내서 차단, 삭제하는 일을 한다. 사람이 하루 종일 성폭행, 자살, 엘사게이트 같은 부류의 동영상을 보며, 이를 삭제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얼

마나 고되겠는가. 다큐멘터리 <The Cleaner>에서 보면, 이러한 플랫폼 상의 '청소부'는 미국에서 임금이 낮은 동남아, 남미인들이 많이 맡고 있다. 또 실제로 페이스북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은 회사를 상대로 콘텐츠 검열 후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긴 것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하간 이러저러한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래에는 이 일을 AI가 하기를 기대하면서, 특정 유형 콘텐츠를 자동 삭제, 차단하는 AI 개발에 열중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는 허용과 금지의 중간 지대에 있는 모호한 게시물들, 맥락을 읽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게시물 존재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계와 인간이 협업하며 모더레이

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도기(?)에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러한 인간 모더레이터들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모더레이터들은 업무 내내 혐오 발언을 듣고, 자살, 고문, 참수 동영상을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을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하기에 부적절한 점, 그리고 모더레이터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며 사용자의 계정에 접근해야 하는데, 재택 환경에서는 이러한 보안 수준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 등 때문에 플랫폼 모더레이터들의 재택근무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득이 AI 모더레이터를 풀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단기적으로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모더레이션 작업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AI 모더레이터들이 계속 케이스를 습득하게 되면, AI만으로 모더레이터가 꾸러지는 시대가 아마도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AI에게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시점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기실, 보고 나면 불쾌함만 남는 게시물들, 매우 낮은 수준의 연봉을 주면서 계속 보도록 시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사람 대신 알고리즘이 나쁜 것을 미리 걸러준 뒤에, 사람은 양질의 콘텐츠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미래 사회의 축복이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AI에 '사실을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색인하는 작업'을 넘어서서 '윤리적이고 법적인 판단'을 맡기는 초기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약 AI가 이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일의 결과물을 두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이미 '알고리즘과 관련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디어와 관련한 한 예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이언톨로지, 사기 등의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나온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 대법원은 구글의 자동완성 검색 기능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구글이 위 특정인과 사이언톨로지, 사기라는 단어를 직접 엮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구글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기본 설계, 예를 들어 A, B라는 특정 단어를 동시에 검색하는 구글 이용자가 많아지면 구글 자체 서버에서 A, B를 묶어두고, 이후에 A만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B도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기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즉 누군가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애초에 알고리즘을 설계한 구글이 져야 할까. 아니면 처음에 A와 B를 함께 검색하기 시작한 개인들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는 결함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는 검색 엔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결국 여기에는 다양하고 격렬한 논의가 함의되어 있다. 검색 알고리즘이 '검색 사업자'의 의견 표현에 과연 해당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추천 검색어가 독자적 의미를 갖는 '표현물'인 건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히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표시된 검색 촉진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들이다.<sup>1)</sup> 혹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우리 법원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법적 책임 지우는 조건들(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요청을 받았거나 혹은 삭제 요청이 없었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고, 게시물의 관리 및 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였는데도 그대로 놔두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차용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알고리즘과 AI가 파생하는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들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인간도 결국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지'가 과연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래에는 기계가 사람에게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등을 알려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금의 법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본주의 정신에 발을 붙이고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만약 정말로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지금의 법률 체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런 미래가 오지 않거나, 매우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것은, 내가 겁쟁이여서 그럴까.

1) 김정민, 황용석이 저자인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과 법적 쟁점' 논문에 관련 논의가 자세히 실려 있다.



# 부조리에 대한 비판

## 오희가(五噫歌)

다섯 번 탄식한 노래

후한(後漢) 양홍(梁鴻, 약 25-105)

陟彼北邙兮. 噫. 척피북망혜 희  
저 북망산에 오른다. 허!

顧瞻帝京兮. 噫. 고침제경혜 희  
도성을 돌아보니, 허!

宮室崔嵬兮. 噫. 궁실최외혜 희  
궁궐은 높고 크구나. 허!

人之劬勞兮. 噫. 인지구로혜 희  
사람들은 힘겨운데, 허!

遼遼未央兮. 噫. 요요미양혜 희  
까마득히 끝날 날이 없구나. 허!

북망(北邙) :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 북동쪽에 있는 산 이름  
희(噫) : 허! 감탄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의성어  
최외(崔嵬) : 높고 큰 모양  
구로(劬勞) : 일에 지치다, 힘들다.  
요요(遼遼) : 먼 모양  
미양(未央) : 끝나지 않다, 끝이 없다. '양(央)'은 '진(盡)'과 같은 뜻으로 '다하다'이다.

양홍은 후한 시기의 유명한 은자로, 학문이 깊었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은거했던 사람이다. <오희가>는 그가 수도인 낙양에 들렀다가 북망산에 올라 화려한 궁궐들을 보면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탄식한 내용이다.

한시(漢詩)에서는 글자의 중복을 꺼리는데, 이 시에서는 '희(噫)'자가 다섯 번이나 중복되고 있다. 같은 자이지만 '희'자에는 세 층차의 함의가 있다. 문맥상 제1구가 한 단위를 이루어 도입부가 된다. 여기의 '희'자는 산에 오르면서 숨이 차서 나온 소리이다. 다음으로 2구와 3구가 한 단위가 되어 전개부가 된다. 두 '희'자는 화려한 도성과 즐거운 궁궐에 대한 감탄의 의성어이다. 그 안에는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이 암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구와 5구가 한 단위가 되어 마무리를 이룬다. 두 '희'자는 삶에 허덕이는 백성을 안타까워하는 개탄의 소리이다. 그 안에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 구성이 간단하고 글자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단조롭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다양한 함의를 지닌 '희'자에 있다.

후한은 초대 황제인 광무제(光武帝) 때부터 절약과 검소를 내세우며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했다. 양홍의 시는 그것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황제였던 장제(章帝)가 이 시를 보고 즉시 양홍을 잡아들이라고 하자, 양홍은 그 길로 이름을 바꾼 채 숨어살았다.

양홍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많다. 먼저 부인을 맞이한 과정이 범상치 않다. 봉건주의 시대임에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배우자를 택했고, 그 기준 또한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범엽(范曄)이 지은 <후한서·양홍전>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인 맹광(孟光)은 뚱뚱하고 못생겼으며 피부가 검고 힘이 섰다. 그런데도 신랑감을 고르느라 나이가 30이 되었다고 했다(肥醜而黑, 力舉石臼. 擇對不嫁, 至年三十). 신부감으로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양홍 같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홍은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기꺼이 아내로 맞이했다고 한다.

맹광이 혼례에서 화려하게 꾸미고 나오자, 양홍은 7일 동안을 상대하지 않았다. 아내가 연유를 묻자 양홍이 말했다. “나는 소박한 옷을 입는 사람을 얻어 함께 깊은 산속에 은거하고 싶을 뿐이오. 그런데 당신이 비단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왔으니 어찌 내가 바라던 바이겠소.” 아내가

머리를 질끈 묶고 베투를 입고서 나타나자 양홍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 것이 진정 양홍의 아내로다.”라 하고는 함께 패릉산(霸陵山)으로 들어가 농사와 길쌈을 하면서 살았다.

또 이들 부부에게는 ‘거안제미(擧案齊眉)’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부부가 오(吳) 지역에 가서 품을 팔아먹고 살았다. 행랑채에 살면서 맹광은 남편에게 밥을 내올 때마다 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고 왔다. 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감탄하고 집안에 들어와 살게 했다고 한다. 이후 ‘거안제미’는 부부간에 존경하고 대우하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양홍의 이 시는, 잘못된 국정을 비판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염려하는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당(唐)나라 두목(杜牧)의 <아방궁부(阿房宮賦)>에서는, 화려함을 지극하게 했던 아방궁과 노동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대비했다. “들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남쪽 밭의 농부들보다 많았고, 들보에 걸쳐 있는 서까래는 베틀 위의 베 짜는 여인들보다 많았다.(負棟之柱, 多於南畝之農夫, 架梁之椽, 多於機上之工女.)” 글의 말미에서, “진(秦)나라를 멸족시킨 것은 진나라 자신이었고 천하가 아니었다.(族秦者, 秦也, 非天下也.)”라고 하여 진(秦)나라가 15년 만에 망한 것은, 진시황이 자신의 향락을 위해 갖은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한 자업자득이라고 결론지었다.

북송 초기의 매요신(梅堯臣)도 <기와 굽는 사람(陶者)>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陶盡門前土,      기와를 굽느라 문 앞의 흙을 다 써도,  
屋上無片瓦,      자기 집 위에는 기와 한 조각이 없네.  
十指不霑泥,      열 손가락에 흙 한 점 묻히지 않는 이들은,  
鱗鱗居大廈,      가지런한 기와의 큰 집에 살고 있네.

시를 짓는 데에 기교를 배척하고 ‘평담(平淡)’을 주장했던 매요신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난 시이다. 노동에 온 힘을 다하면서도 자신은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것들을 독점하는 지배계층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에 그쳤지만 그 부조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 시대에도 옛날의 전제국가와 같은 독재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런 곳의 국민들이 겪는 고초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선진국,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상황은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위정자들이 그 부조리와 불평등, 모순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위정자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 들꽃과 자전거가 동행하는 '야생(野生)'의 길

유하(1963~ ) 시인이 시단을 떠나 영화계로 이주한 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하는 여전히 우리 시사의 한 영역을 개척한 주목할 만한 시인이고, 그의 시는 최전선의 '아방가르드'이며 동시에 '오래된 미래'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하는 영화감독으로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말죽거리 잔혹사> 등의 작품으로 유명해졌고, 2006년도에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주관하는 감독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영화감독보다는 시인으로서 아끼는 마음을 더욱 크게 갖고 있으며, 특별히 그의 시 전반에 강물처럼 푸르게 스며있는 노자적(老子的) 사유와 상상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모더니즘을 넘어 포스트모더니즘의 극한을, 휴머니즘을 넘어 포스트휴머니즘의 극단을, 도시화를 넘어 디지털 제국의 판타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래된 노자적 사유와 상상력을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자적 사유와 상상력은



우리를 본향으로 귀가시키는 치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문명사의 엔트로피가 가파르게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이 시대에 이는 엔트로피의 과도한 흥분과 과열을 막아주는 진정제이자 해열제입니다.

유하는 우리가 이달에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 작품 <들꽃에 관한 명상-자전거의 노래를 들어라5>에서, 우리를 야생의 들꽃 세계로 안내하며 명상의 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명상'의 시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풀꽃뿐만 아니라 하늘도, 바람도, 강물도, 학교의 교정도, 공부하는 책상 등도 우리를 고요하고 싱싱한 본래의 첫 자리로 안내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명상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혼란스럽고 무력해진 생명 에너지를 정돈하고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유하는 우리가 함께 읽는 작품 <들꽃에 관한 명상-자전거의 노래를 들어라5>에서, 들꽃이 만든 '지도에도 없는 무명(無名)의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노자풍'의 포즈로 달립니다. 여기서 들꽃과 자전거는 '노자적 사유와 상상력'의 환유입니다. 그들은 인공의 지도책과 제한된 칸막이의 협소한 도로를 벗어난 무위와 자율과 해방의 열린 길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야생의 길' 위에서 시인은 수많은 것들을 순정한 마음으로 기쁘게 만나며 벗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바람을, 강바

람에게 인사를 보내는 역새풀과 벌개미취와 쑥부쟁이와 달개비와 노루귀들을 그는 우정 속에서 만나며 감격스러워합니다.

유하는 이들이야말로 현시대의 문명이 가세하거나 지배당하고 있는 속도의 문법과 권력이 좀처럼 닿을 수 없는, 이 땅의 아직 남아 있는 숨은 오지이자 은거의 자연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이런 속도의 문법과 권력은 끝을 알 수 없는 인간 욕망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어딘가에 도달하고자 하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흥분시키거나 소진시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앞에 <들꽃에 관한 명상-자전거의 노래를 들어라5>라는 작품은 '노자의 길'을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조금 느리게 가보라고, 경계를 의심하고 해체해 보라고, 당신의 심장박동과 생체리듬의 참소리를 들어보라고, 야생의 들판에 한 번 나가 보라고, 우리들 이전부터 존재했고 우리들 이후에도 존재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노자의 언어 가운데 '인법지(人法地) 지법천(地法天) 천법도(天法道)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인법이 지법을 따르고, 지법이 천법을 따르며, 천법이 도법을 따르고, 도법이 자연법을 따라야만 삶이 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 자전거를 타고 들꽃이 낸 야생의 길을 한번 시대를 '역행하듯' 달려 보면 어떨까요? 막힌 어혈이 시나브로 풀릴 것입니다.

### 들꽃에 관한 명상 -자전거의 노래를 들어라5

유 하

지도에도 없는 무명의 길을 달린다  
속도의 권력을 갖지 않는 자  
더 많은 것을 만나고 베풀게 되리라  
내 친구인 강바람이어  
바람을 따라 따뜻한 인사를 보내는  
사려 깊은 역새풀이어  
벌개미취여  
쑥부쟁이여  
달개비여

노루귀여  
속도의 권력이 허가한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이여  
길들여지지 않는 들꽃의 길이어  
그러니 대저 길의 경계가 어디 있겠는가  
스스로 길을 만들지 않아도  
자전거는 달린다  
그 모든 야생(野生)이 우정으로 내어준 그 길을

- <천일마(馬)화>(문학과학지성사, 2000)에서



# 쓰 다

쓰세요.  
카메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너는 말한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닫힐 때, 우리는 홀로 앉아 무언가를 써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너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혹은 나 아닌 것에 대하여, 너 아닌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쓰세요.** 당신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에 대하여. 가볍고 사소한 불행, 무겁고 힘겨운 불행, 가벼웠다가 무거워진 불행, 힘겨웠다가 사소해진 불행을 얘기하세요. 그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끝났나요? 어떤 전조 혹은 예감은 있었나요?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만약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지금의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불행으로 인해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쓰세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사라진 것, 왔다가 떠난 사람, 잘 작동하다가 망가진 물건, 갑자기 바뀌어버린 가치관, 마음속에 존재했으나 증발해버린 감정에 대해 얘기하세요. 잃어버린 그것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리고 어디로 갔나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상실했나요? 그로 인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했나요?

**쓰세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오늘의 당신과 십 년 후의 당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새들은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당신은 혼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나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변해버린 것과 제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에 감사하나요?

**쓰세요.** 어제까지 할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입에 대지 못했던 음식을 처음 먹어본 날,

수영이나 운전할 수 있게 된 날, 죽고 싶도록 괴로웠다가 문득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툭툭 털고 일어난 날에 대해 얘기하세요.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되어, 나는 법을 배운 아기새가 되어, 최초의 환희, 순간의 황홀을 느껴보세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넘어가는 그날,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나요? 누구와 함께 그 순간을 느끼고 싶은가요? 당신이 손을 뻗으려 하는,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쓰세요.** 세상의 모든 '처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순간에 대하여. 쓰세요.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 대하여. 하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은유를 찾아내고, 은유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빛나게 하고, 소리 내지 않는 것을 노래하게 하세요.

**쓰세요.** 기억을 잃어버린 하루에 대하여. 달과 행성과 외계인에 대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노래와 그림에 대하여.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에 대하여. 새로울 것도 없고 빛날 것도 없는 당신의 일과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 일어나지 않았으나 일어났을 법한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세요. 정면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뒤집어 보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세요. 이랬다면, 저랬다면, 가정해보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쓸 때, 당신은 여기가 아닌 거기로 갑니다.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됩니다. 단 하나의 우주에 갇혀 있는 당신은 무한한 우주를 만납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새들은 아직도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너는 카메라를 끄고 두 손으로 얼굴을 덮는다. 기다렸다는 듯, 날카롭고 길게 재난문자가 울린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 하나가 또 닫히는 소리다. 어두워가는 방안에 홀로 앉아, 너는 쓰기 시작한다. 너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혹은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 뒤통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신문기자'

요시오카(심은경)는 '별종'이다. 뉴욕에서 나고 자랐지만 4년 전, 일본으로 와서 무명 신문사의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를 동료들은 그렇게 부른다. 요시오카는 남들이 굳이 캐려고 하지 않거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사건을 파헤치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요시오카는 별종이 아니다. 훌륭한 저널리스트였던 아버지가 오보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 자살하자 그녀는 그 배후에 누가,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요시오카는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믿고 의심하라"라

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한다. 그녀는 세상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다.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기자를 '별종' 취급하게 만든 건 병든 사회다.

스기하라(마츠자카 토리)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이며, 아내에게는 다정한 남편이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상사에게도 깽뚫할 뿐 아니라 따뜻한 말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어찌면, 스기하라는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각정보실에서 일하는 그는 상사가 매체에 압력을 넣고 가짜뉴스를 뿌리는 데도 크게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변명한다. 스기하라는 막 태어난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안정적인 생활과 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썩을 대로 썩은 국가 권력이다.

'신문기자'(감독 후지이 미치히토)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다. 부패한 권력과 언론을 향한 진중한 비판을 담은 이



영화에서 요시오카와 스키하라는 윤리적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먼저, 요시오카는 최근 인가를 받은 신규 대학 설립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시작한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의료계 대학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성이 아니라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실에서 승인한 것이 수상하다.

한편, 스키하라는 북경 주재원 시절 상사였던 칸자키의 자살에 충격을 받는다. 칸자키의 장례식에서 만난 스키하라와 요시오카는 칸자키의 죽음에 신규 대학 설립 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칸자키의 아내를 설득해 그가 남긴 비밀 서류를 연다. 그곳에는 정부가 설립하려는 대학이 군사용 시설이라는 단서가 들어 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요시오카와 스키하라는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직감한다. 그러나 요시오카와 달리,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스키하라가 국가에 맞서는 일을 행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두 사람이 조금씩 국가의 거대한 음모에 다가서는 동안 '신문기자'에는 TV에 출연한 논설위원들의 말이라든가, SNS에 올라오는 글, 그리고 정치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이 종종 삽입된다. 가령,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시사프로에 출연중인 한 논설위원의 말이 내레이션처럼 사용되는데, 감독은 여기에 영화의 주제를 천명한다.

*“저널리즘이라는 건 기사를 보는 시민을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권력자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죠...(중략)...*

*정부의 강력한 규제 탓이 아니라 유력 미디어들이 시대와 싸울 자세를 갖추지 않았지요. 기자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해요.”*

새로운 것 없는 이런 문장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신문기자'가 보여주는 권력의 횡포와 은폐에 일본의 부끄러운 현실이 잘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속 내각정보실과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미디어의 힘을 악용해 대중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국가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 다시 권력을 공고히 한다. SNS와 기사의 댓글들은 거대한 권력이 제조한 빛



깔로 물들어간다.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대중들 속에서 요시오카처럼 양심적인 저널리스트는 수렁을 헤매다 좌초하기 일보 직전이다. 과연 요시오카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스키하라는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을까?

'신문기자'는 2017년 아베 총리 부부가 지방 사학재단의 국유지 매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아베 사학 스캔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현 정부를 비판한다는 점 때문에 일본 배우들이 영화 출연을 꺼려 했고, 홍보해주려는 매체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개봉 후 호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요시오카 역을 맡았던 심은경이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 스키하라 역을 맡았던 마츠자카 토리도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영화도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했다. 일본 영화인들의 정치적 각성이 담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개인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침잠시키는 권력의 부조리함을 어둡게 그려내고 있지만, 그것이 촉진시킨 반성과 변혁의 움직임은 유의미했던 셈이다.

SNS 시대는 곧 누구나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진실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매체와 권력에 휘둘릴 것인가. 우리도 요시오카나 스키하라의 고민과 갈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위원회 뉴스

## 2020년 정기총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코로나19로 인해 4월 14일부터 열흘간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부위원장의 중재위원직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태경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과 최홍운 중재위원(경기중재부)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과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시정권고위원 선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운영위원회 위원과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출하였다. 임기는 2020년 9월 16일까지이다.

구분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운영위원회 위원(2명)	서울제6중재부	정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중재부	고영철	(전)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2명)	서울제1중재부	신헌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제7중재부	박태경	(전)KBS 프로듀서(EP), 제작위원

## 교육 교재(3종)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4월 29일 교육교재 <한 권으로 끝내는 언론분쟁해결 가이드북>을 새롭게 제작했다. 새 교재는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탈피해 언론분쟁 해결 사례 및 조정절차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북의 형태를 띤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청소년용으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워크북>을 제작했으며, 기존 교재인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역시 신규 판례 및 사례를 보강 개정했다. 각 교재는 교육신청 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위원 동정

## 김선남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위촉

김선남 위원(전북중재부,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4월 22일 대통령직속 제2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황선철 위원,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참석

황선철 위원(전북중재부, 황선철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3월 24일 '선거연령확대로 바라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전주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황 위원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 영역에서도 정치활동이 넓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안차수 위원, <KBS 창원방송총국 2020 총선 개표 방송> 참석

안차수 위원(경남중재부,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4월 15일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방송한 '2020 총선 개표방송'에 참석했다.

## 신임 중재위원 위촉

3월 31일자로 중재위원 32명(서울 16명, 지역 16명)이 위촉되었다.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서울제1중재부	심창섭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2020.3.31.~2023.3.30.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0.3.31.~2023.3.30.
	황인석	(전)매일경제신문 부장	2020.3.31.~2023.3.30.
서울제2중재부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서울제3중재부	김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윤능호	(전)MBC 부국장	2020.3.31.~2023.3.30.
	오재석	(전)연합뉴스 편집국장	2020.3.31.~2023.3.30.
	임선영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2020.3.31.~2023.3.30.
서울제4중재부	강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3.3.30.
	김지영	(전)경향신문 편집국장	2020.3.31.~2023.3.30.
	양호산	양호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3.31.~2023.3.30.
서울제5중재부	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2020.3.31.~2023.3.30.
서울제7중재부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0.11.8.
서울제8중재부	박태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윤영미	(전)한겨레신문 부장, 사업국장	2020.3.31.~2023.3.30.

\*표시 중재위원은 전임자 잔여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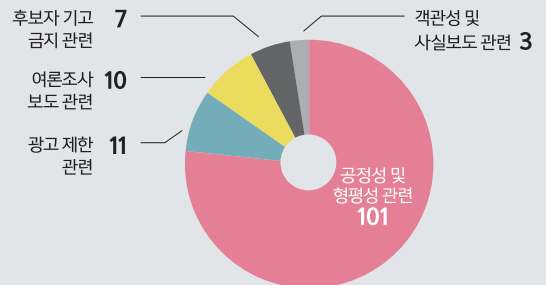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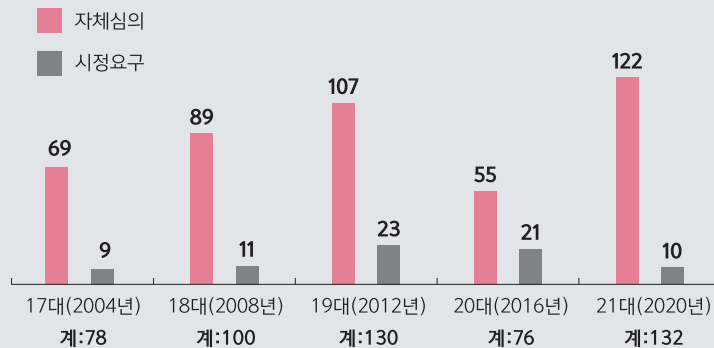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임기
대구중재부	양정혜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20.3.31.~2023.3.30.
광주중재부	김봉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0.3.31.~2023.3.30.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0.3.31.~2023.3.30.
대전중재부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3.31.~2021.8.31.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2020.3.31.~2023.3.30.
	성민정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20.3.31.~2023.3.30.
경기중재부	최홍운	(전)서울신문 편집국장	2020.3.31.~2023.3.30.
	남궁덕*	포항공과대 대외교수	2020.3.31.~2021.3.7.
강원중재부	김복형*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1.8.31.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2020.3.31.~2023.3.30.
충북중재부	김성수*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1.8.31.
전북중재부	천현숙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20.3.31.~2023.3.30.
	김상근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3.3.30.
경남중재부	조윤신*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1.8.31.
제주중재부	김현룡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0.3.31.~2023.3.30.
	김건일	(전)한라일보 사장	2020.3.31.~2023.3.30.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어떤 유형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었을까요?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매 선거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운영된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월 16일 기준으로 자체심의 안건 122건, 시정요구심의 안건 10건으로 총 13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유형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을 위반한 유형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광고 제한 조항을 위반한 유형이 11건, 여론조사 보도 조항을 위반한 유형이 10건, 후보자 기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유형이 7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조항을 위반한 유형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월 15일로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은 종료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지자체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도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항상 듣고 있을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 곁에는 언제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